


작품 : 조길상 노엘(부산가톨릭서예인회) 
목 자 양을 뜻하는 갑골문자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후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2.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3.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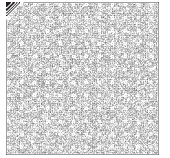
제2독서 요한 1서 3,1~2

복음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영어사전에서 'Calling' 을 찾아 보면 '직업' 을 의미하는 용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구 문명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인데 왜 '부르기' 를 뜻하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을까?

1차적으로 하느님이 불러서 어떤 임무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즉 소명(召命) 혹은 성소(聖召)를 뜻하는데 앞에 부르는 주체인 하느님을 생략한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나아가 하느님이 주신 직업 즉 천직(天職)을 의미하게 되고 3차적으로는 특정한 직업을 초월해서 모든 생업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직업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번 주는 성소 주일이다. 그 유래는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들 양성을 위해 매년 부활 4주에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맘으로 제정하셨다.

물론 하느님의 부르심은 꼭 성직자, 수도자의 길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앞서 Calling의 의미처럼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느님의 섭리(攝理, Providence)를 체험한다면 그것이 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다.

그러나 서구교회에서 성소 주일을 특별히 제정하여야 했던 그 당시의 위기상황이 이제 한국천주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출산율 감소로 젊은 층의 절대수가 감소하는데다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갈수록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성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세속의 흐름에 한국천주교회는 직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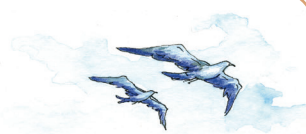
있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 중략 -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직자의 길은 자신과 상관없는 길이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이라고 스스로 자위한다. 그러나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은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에 응답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힘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자신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느님께 받은 명령인 것이다.

차 공 명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
꽃바위성당 주임



안데스 산맥의 5000미터 높이 얼음 바위들에 살고 있는 새들이 있지요. 눈바위 속에 동지를 만들고 천적이 없는 그 곳에서 어미새는 새끼에게 씹음이 벌레를 물어다 줍니다. 그 얼음 산 속에 무슨 벌레가 있는지, 새끼새는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어미새는 끊임없이 그 입 속에 자기 부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눈은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동지가 점점 녹는 눈 속에 끌려내려갑니다. 새끼 새 중 한 마리는 동지에서 어미새를 따라 날아나왔으나, 한 마리는 영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한 마리의 새, 녹고있는 빙하의 동굴을 나오지 못한, 신의 손길을 따르지 못한 빙하새가 아닐는지요.....?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코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4.23(월)~24(화)
차공명 신부(꽃바위성당 주임)
4.25(수)~28(토)
이송섭 신부(동래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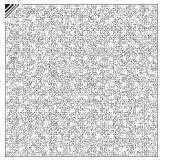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4.24(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해양사목
4.25(수) 본당 리포터
출연 : 최은진 베로니카(남산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4.27(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계만석 프란치스코(인천교구)



평화를 빙니다.



나이 탓일까요? 잠이 줄었습니다. 늦잠을 자도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 잠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벌써! 노화의 신체변화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새벽기상에 익숙해지면서 좋은 점도 생겼습니다. 새벽시간 혼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호젓함이란. 때론 편히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가정의 소중함을 실감합니다.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맑은 공기를 관통하는 빗소리에 기분 좋게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새벽 미사를 볼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아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며 “영감님 다 됐냐?”며 타박을 해도 새벽 시간 만나게 된 평화로운 행복을 계속 즐길 생각입니다.

흔히 평화란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

스도인에게 평화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느님과 만나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노력을 통해 얻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 그걸 세상의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대상이 하느님이라면.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상처를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세상 끝 날 뒤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느님과 이루는 사랑의 일치. 그 충만한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아닐까요.

평화는 의식주가 채워졌다고, 또 잠시 혼자 세상 근심을 잊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 욕심은 결코 만족을 모르고, 세상 누구도 근원적으로 혼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성과 합리

를 내세워 인류가 만든 제도, 사상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랬고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과학의 발달, 집단지성의 결집이 때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화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안에서 나온 선물이고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넉넉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만발한 꽃잎과 초록으로 영글어가는 새싹들. 겸손과 온유의 마음만 지닌다면 이 봄날의 선물 가운데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빙니다.

■ **탁 은 수 베드로**

광안성당 • 언론인 fogtak@naver.com

환경과 생명 우리가 가진 열쇠

거창하게 농사가 아니라도 하나의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작은 자신의 손을 통해 변화해가고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고, 마음에 버겁게 올려놓았던 것을 내려놓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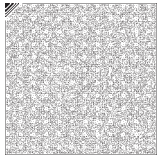
원예치료라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이나, 아동 치유에 쓰이는데, 작은 화초, 혹은 자그마한 텃밭을 일구면서 마음의 위로와 자존감 회복, 기억을 되돌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치유 방법입니다. 식물은 오로지 가꾸는 이의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맘을 담아 사랑을 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스스로가 치유되고 성장하는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내어놓고, 품고, 키워내고, 살리는 일에 머물 때 가능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사랑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진짜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의 힘은 그분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우리의 손길로 그분은 창조와 구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에 의해 하늘이 움직여집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닮아 가는 사람에 의해 세상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풀고, 위로를 주고,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새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성소에 대한 글을 쓰려니, 제가 한 여러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빈소, 신부님 앞에서 한없이 터진 눈물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하느님의 위로’, ‘신학교 지원을 결정하고 설레던 마음’, ‘독서 직 전날, 수단을 바라보며 느꼈던 기쁨’, ‘사회체험을 통해 만난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 ... 이러한 체험들은 저로 하여금 사제의 길을 계속해서 꿈꾸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느님께서 저를 어떤 한 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극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 삶 전반에 걸쳐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는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는 말처럼 제가 성장해 가는 만큼 하느님의 부르심을 좀 더 헤아릴 수 있었고, 제 성소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

느님께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성소에 대한 확신 속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응답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돌파구가 되어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이 길을 걷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대답들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 제가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수많은 모양새로 세상에 펼쳐져 있지만, 그 가운데 사제의 삶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 안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지금도 이 길을 걷도록 저를 매혹시킵니다. 예수님께 이끌

려 걷는 이 길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게 할 만큼 제게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성소에 대한 체험 중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는 이 길이 혼자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매혹적 일지라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걷고자 하였다면 저는 교만의 덫에 걸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삶을 지탱해주는 가족, 앞서 이 길을 걸으신 선배 신부님들, 기도해 주시는 많은 은인들,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걷도록 허락해주신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는 지금도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성소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을 봉헌하는 길을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 **임정철** 바오로
신학생 / 다대성당 • 연구1년



제게 성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소에 대한 질문의 출발점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입니다. 성소는 단 한 번의 결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식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소를 식별할 때 세 가지를 꼽아봅시다. 우선 본인의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실력과 자질도 겸비해야 하는데 곧,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성과 사회성, 학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성, 내적인 생활과 성덕을 닦을 수 있는 영성, 그리고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사목적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소는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고 양육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성소는 소속 본당이나 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은 사제 서품

식 경문에도 드러납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주교님께서 여기 있는 이 부제들을 사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으니까 저를 서품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원하기까지 후보자를 서품해주세요’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는 가정의 역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신의 가정은 성소친화적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신학교’가 되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과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현대의 사제양성 41행) 물론 이 말은 가정이 완벽해야 성소가 생긴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 행복과 위기 모두가 사제 성소의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교구
소식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지난 4월 14일(토)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부산가톨릭문인협회(회장 : 배계선 브루노)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회원 및 내빈 100여 명의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회장 인사 및 축사, 축하 공연(시낭송, 색소폰, 중창 등), 테이프 커팅, 시화 전시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메리놀병원, 개원 68주년 기념행사



개원 68주년 맞은 메리놀병원(병원장 : 손창목 가브리엘)은 지난 4월 11일(수) 마리아홀에서 직원 및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기근속상 시상, 감사패 전달,

황철수 주교 축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노동사목에서 운영 중인 '도로시의 집-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에 물품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개원 기념사업 일환으로 환우들을 위한 음악 연주회(3/31), 교구 예술문화단체 교류전 '답다' 순회전시회(4월 한 달간) 등 행사가 진행 중이다.

여성단체장 및 여성 전신자 교육



지난 4월 16일(월)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여성단체장 및 여성 전신자 교육'이 교구 여성연합회(지도 : 장재봉 신부, 회장 : 유혜영 데레사) 주관으로 신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의 '세상 안에서의 여성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한 후 교육을 마쳤다.

믿음 증진을 위한 피정



석포성당 아가페회

4월 15일(일) 마리아피정센터
주임 : 김종남 신부, 회장 : 이병열 라우렌시오



동래성당 구역분과

4월 11일(수) 예수성심시녀회 교육관
주임 : 김두운 신부, 회장 : 박영표 루치오

춘계 선종봉사자 교육



4월 5일(목)~6일(금) 은혜의 집 사회사목국(국장 : 김영환 신부) 주관

아미성당, 사목위원봉사활동

4월 8일(일)
내용 : 본당 독거 어르신 이사 돕기
주임 : 서정웅 신부
회장 : 김재홍 미카엘



당감성당, 본당의 날 행사



4월 15일(일) 당감초등학교 / 주임 : 김상호 신부, 회장 : 이광호 스테파노

가톨릭센터, 공감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가톨릭센터(관장: 김현일 신부)는 4월 장애인들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28일(토) 오후 4시 소극장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프로젝트' 특별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아트 위 캔 소속 발달장애아티스트 6인의 클래식(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성악, 클라리넷) 공연으로 진행된다. 가톨릭센터 관장 김현일 신부는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아울러 치유하는 '감성의 문화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연 문의: 051-462-1870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4.27(금) 13:30(목주기도), 14:00(미사)
· 월평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성가적 축복미사

· 5.11(금) 19:30 · 안락성당(5지구), 매년 지구순회 대상: 본당 주임신부 추천가정(본당별 1가정)
내용: 축복미사, 축복장 수여, 성가정상 수여, 교구장 주교님과 가족사진 촬영

사무처 직원 채용

분야: 사무직 1명(엑셀 가능자, 졸업예정자 가능)
이력서 제출: 4.22(일)까지, 우편접수 / 문의: 629-8775(이력서 심사 후 추가서류 및 면접일 개별통보)

관리국 직원 채용

인원: 1명 / 업무 분야: 재산(건축 묘지) 관리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세제증명서
서류 제출: 4.26(목) 17:00까지(관리국 제출: 우편, 방문) / 선발 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1차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문의: 629-8730, 8733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
※ 셔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055)374-8732~3(관리사무실)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0. 4. 25. 장병룡(사도요한) 신부님



■ 읽고 · 보고 · 듣고

그 남자 그 여자
■ 공연 5월 13일(일)까지
■ 장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시간 화-금 20:00, 토 16:00, 19:00, 일 15:30, 18:30

연애하기 좋은 날
■ 공연 6월 17일(일)까지
■ 장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시간 화-금 17:00, 19:30, 토 15:00, 17:30, 20:00, 일 14:30, 17:00, 19:30

■ 관람료 3만원 → 평일 1만 5천원, 주말 1만 8천원 ■ 문의 1588-2757 ※ 월요일 공연 없음

본 당

반송성당 성가대 반주자 구함
문의: 542-1530(사무실)

괴정성당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구함
문의: 207-3977(사무실)

우정성당 사무직원 구함
자격: 회계, 컴퓨터(한글, 엑셀) 능숙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052)243-4567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5.2~6.30(2개월 3만원) / 문의: 010-8501-9250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교구평형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4.28(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622-5588(평형)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4.27(금) 휴회(성령대회)
- 젊은이 성령기도회
· 4.23(월) 19:30 전포성당
· 4.25(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청소년 기도회: 4.29(일) 13:30 전포성당
- 수요치유기도: 4.25(수) 11:00~16:00 (버스: 시간표 참조)
- 후원회 월미사: 4.30(월) 11:00 / 점심 제공
미사, 양형성체, 도우안수
[후원회원을 위한 기도회] 신설
- 29기 성령목상회 심화과정 1단계3차
· 5.11(금) 15:00~13(일) 17:00 (성모신심목상회)
회비: 10만원 (교재비 8,0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참

부산교구 성령쇄신대회

일시 / 4.28(토) 09:00~18:00
장소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강당

강사: 윤민재 신부, 이미숙 수녀
미사: 황철수 주교, 지도사제단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돗자리, 도시락
식권 판매(5천원) / 문의: (055)382-9465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p>서울공예사</p> <p>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솔로) · 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p> <p>제대, 강론대, 장래틀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나가사키 성지순례</p> <p>6/25~28(3박 4일) 45명 모집 010-8511-2442, 253-5887</p> <p>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 (프란치스코)</p>	<p>CAS 전자저울, 로드셀, 계측기 AND</p> <p>정원엠테크</p> <p>전자저울, 로드셀, 토크셀, 인더케터, 계량시스템 계측기, 중앙선별기 전문, 무상S/S지원, 교정검사</p> <p>324-4800 www.castotal.co.kr 김영균(이내시요) 김은숙(요안나)</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p> <p>간, 소화기계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p> <p>·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연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상업, 박상욱</p> <p>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하지정맥증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p> <p>박우일 (요셉), 박동욱(안드레아)</p> <p>754-9975~6</p> <p>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타워 1층</p>	<p>가인방문요양센터</p> <p>국비지원(85%~100%)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민병덕(사도요한), 윤승선(보나)</p> <p>010-7448-7858</p>	<p>건설현장의 꽃</p> <p>조은 이동타워 크레인</p> <p>독일 LIEBHERR, MK80, 88, 100, 110, 등 MK80-마스타30M 짚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짚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짚52M엔드 1.8톤작업</p> <p>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p>	<p>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 ·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p> <p>활기찬 성모재활센터</p> <p>주 만 구(스테파노)</p> <p>639-1008</p> <p>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p>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4.26(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박근혁 신부(3방공포여단 천마대성당)
 울산 : 5.4(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송재현 신부(53사단 하상바오로성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4.26(목) 19: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 441-6403

Arca 제60차 탈출기 연수생 모집

· 5.4(금)~7(월) ·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
 모집 : 4.24(화)까지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4.23(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부산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4.24(화) 19:30 · 수영성당
 연주 : 아뉴스태이합창단 / 주례 : 임석수 신부
 문의 : 010-8545-6504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4.25(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 김중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
 단원 입단 문의 : 010-7339-8545

부산 미바화 후원회 미사

· 4.27(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4.24(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4.28(토) 11:00(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4.29(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4.25(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예수성심의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4.27(금) 14:00~17:00 (16:00 미사)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 푸른나무 교육관 / 강의 : 김대선 신부
 문의 : (02)379-8091

울지마톤즈 2018 참사랑 문화나눔축제

· 5.5(토)~7(월) · 송도해수욕장
 내용 : 기념음악회, 참사랑음악경연대회, 참사랑(문
 즈거리)길 걷기, 아나바다 베품시장 등 / 문의 : 241-
 1601, 253-1601(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협회)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행복웃음피정 : 5.11(금)~13(일)
 성경통독피정 : 5.25(금)~6.3(일)
 하느님현존피정 : 6.1(금)~3(일)
 문의 : 010-3340-0201, 010-9086-1882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3박4일 피정 : 5.4(금)~7(월) / 6,7(목)~10(일)
 8박9일 피정 : 5.22(화)~30(수) / 6,22(금)~30(토)
 40일피정 : 6.17(일)~7.26(목)
 청년피정 : 7.28(토)~31(화) / 대상 : 35세 미만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예수회	4.28(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여름학기 학생 모집

▶ 모집 : 6월 5일(화) 까지
 ▶ 수업 : 주 5일(월~금) 4시간/일
 ▶ 대상 :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등

문의 : 510-0866 / dengnx@cup.ac.kr

부산성모병원
진료시간 안내

* 평일 *
 오전 9:00~12:30
 오후 1:30~5:30

* 토요일 * 오전 9:00~12:30

대표번호 : 051-933-7114

부산성모병원은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가톨릭선학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신성연 수녀(표현예술심리치료사) 개인전

마음으로 그린 상록화

일시. 4/22(일)~28(토)
 장소. 대청갤러리 (가톨릭센터 내)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오양보호사 일임자 국비지원 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 취업연계, 우수훈련강사진</p> <p>818-1004, 245-1004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p> <p>성모치과</p> <p>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p> <p>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p> <p>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p> <p>김용기내과의원</p> <p>[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p> <p>상담 및 예약 245-7100</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7명 : 박인호(우카), 한경문 최평락, 유권희, 남화성, 김윤지 서수홍(라파엘)</p> <p>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진 : 박정미</p> <p>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주)온누리투어 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 매주 1회 부산 출발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 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 캄보디아 프놈펜(안코르와트 일정 포함)</p> <p>853-1333, 010-4843-4020</p>	<p>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p> <p>동래 : 553-0050 추홍수(야교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p>	<p>미래고속관광</p> <p>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p> <p>대표. 우 종 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주)부산 리무진 장의사</p> <p>각 본당의 연도회장님께 연락하시면 부산교구장과의 계약된 내용대로 할인 금액(약 3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김 성 수 (미 카 엘) 418-4444</p>	<p>참병원</p> <p>암환자중점케어, 호스피스 치료 의학박사. 정 중 수(미카엘)</p> <p>714-0890 개금사거리 지하철 2번 출구 바로 앞</p>